

2021 May

Hana

Market Monthly

연구위원 서정훈

Tel. 02-729-0195

seojh@hanafn.com

연구위원 박정은

Tel. 02-729-0190

jungeunpark@hanafn.com



목차

I. 금리	3
I. 달러/원 환율	5
III. 엔/원 환율	7
IV. 유로/원 환율	8

금리

4월 동향

미 인플레이션 기대 완화 속 국채금리 하향 안정에 동조되며 국고채 금리도 하락 추세 후, 1분기 성장 호조 등으로 소폭 추세 반전

미 인프라 투자 계획, 국내 채권시장 수급 부담 요인 등으로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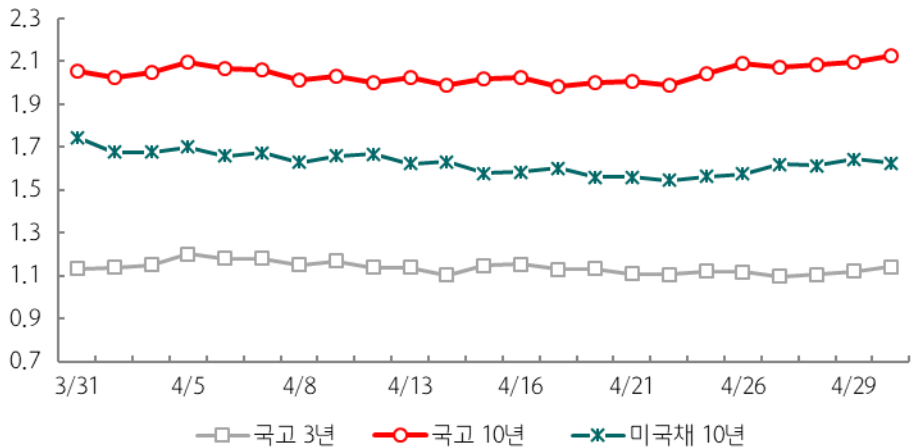
금통위 이후 총재의 매파적 시각 반영과 미 금리 안정에 따른 위험선호 등이 금리 상승요인으로 작용

한-미 1분기 성장률 속 국내 추가 재난 지원금 이슈가 금리 하단 제한

- 4월 초, 미 인프라 투자 계획 발표, 고용지표 개선 등 대외 상승 요인과 국내 수급 부담 영향 등으로 상승 출발 후, 연준 완화적 스탠스 재확인, 국내 코로나 재확산세 등이 금리상승 제한
 - 4월초, 미국의 인프라 투자 계획 발표 및 고용지표 개선이 미 국채금리 상승에 영향을 미치며 국고채 상승 동인으로 작용. 여기에 대내적 국고채 수급 부담 요인 등도 상승 출발에 영향을 미침
 - 이어 연준의 완화적 스탠스 재확인된 가운데 국채 코로나 재확산세에 따른 거리두기 강화 등이 하락 전환 요인으로 작용하며 국고채 금리 방향성 전환
- 중반, 국고채 시장 수급 부담 완화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한 가운데 금통위 이후 총재 회견의 매파적 인식으로 상승 전환. 미 금리 안정세에 따른 위험선호 영향도 금리 상승에 영향
 - 미 국채금리는 물가지표 호조에 상승 추세 보였으나, 국고채금리는 이와 달리 수급 부담 완화 요인에 따라 하락 양상 보인 가운데 금통위 경계감에 등락
 - 이후, 금통위의 금리동결에도 한은 총재의 회견이 매파적으로 인식되며 중장기 구간 상승 전환
- 미국 금리 하향 안정 추세 영향 반영된 가운데 국내 재난지원금 추가 이슈가 하단 제한하는 모습 속에 한-미 1분기 성장률 호조 반영되며 상승 흐름 마감
 - 후반 들어서도 미국 국채금리 하향 안정세가 국고채금리 하락에도 영향을 미쳤으나, 국내 추가 재난 지원금 이슈 재부각되며 하단 제한되는 양상
 - 미 FOMC에서 금리 동결에도 미 국채금리 소폭 하락에 그치는 가운데 한국, 미국의 1분기 GDP 성장률이 시장 예상을 상회하며 경기 개선 기대감 반영 속 상승 흐름 마감

4월 평균
 국고채(3년): 1.14%
 국고채(10년): 2.04%
 T-Note(10년): 1.62%

주요 시장금리 추이



자료: 하나은행

5월 전망

국내 성장세 호조에도 국내외 코로나 확산 우려 여전히 상존한 가운데 한-미 통화 당국 완화적 스탠스 등으로 금리상승 추세 제한 예상

평균	1Q21	2Q21	3Q21	4Q21
국고채(3y, %)	1,04	1,10 ^(F)	1,15 ^(F)	1,20 ^(F)

미국 경제 큰 폭 개선에도 미국과 글로벌 금리 상승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

- 미국의 1분기 성장률이 시장 예상을 상회하면서 테이퍼링 기대감이 잠재해 있으나, 여전히 연준의 스탠스가 통화완화적인 측면이 미국 및 글로벌 금리 상승 추세를 제한할 전망
 - 미국의 1분기 성장률이 백신접종과 경제 재개 등으로 큰 폭의 개선을 보임에 따라 인플레이션 기대가 재차 나타날 수 있는 점이 추가 금리 상승 동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배제할 수 없음
 - 그러나 연준 스탠스가 2%를 완만히 상회하는 물가지표에도 완화적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 배경에 따라 큰 폭 상승은 제한적일 가운데 이에 대한 영향이 국고채금리에도 상당 부분 반영될 전망

국내 경기 회복세 강화에도 코로나 재확산세, 내수부진 지속 등에 따른 한은의 완화적 기조 유지

- 국내 1분기 성장률 호조에도 서비스업 부진과 코로나 확산세 유지에 따른 내수 부진 지속 등이 금리 상승 추세 제한. 여기에 한은의 완화적 스탠스 지속도 금리 상승 제한할 전망
 - 국내 1분기 성장률이 1.6%로 큰 폭의 개선을 보였음에도 제조업 기여도에 비해 서비스업 부진 등 다소 불균형적 측면 속에 코로나 재확산세 우려 이어지며 내수 회복이 다소 지체되는 측면 등이 거시적 측면에서 금리 상승 동력을 제한할 것으로 보임
 - 여기에 국내 성장세가 후반으로 가며 다소 강화되어질 것으로 보이긴 하나 국내 코로나 상황, 민간소비 회복력 복원 전까지 한은의 완화적 스탠스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금리 상승 제한 요인

5월 국고채(3Y) 금리는 1.00-1.20% 예상

- 국내 경기 지표 호조, 백신 보급 진행 등이 국내 경기 진작을 자극할 수 있는 가운데 전국민 재난 지원금 이슈 부각 등이 금리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겠으나, 대내외적 통화완화 스탠스, 대외 코로나 확산 지속 우려 등이 금리 상단을 크게 제약할 것으로 예상됨
 - 국내 경기 지표 호조와 백신접종 진전 등이 국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를 통해 금리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높은 상황
 - 여기에 추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이슈 부각도 수급적 금리 상승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나, 한은의 통화완화적 기조 유지 가능성 등이 금리상승의 시장 기대를 다소 완화하는데 영향 미칠 것으로 보임

상승 요인 vs. 하락 요인

상승요인	하락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 성장세 개선에 따른 국채금리 상승 추세 유효 · 점진적인 테이퍼링 가능성 · 국내 전국민 재난지원금 이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미 통화 당국 완화적 기조 유지 · 국내외 코로나 재확산 우려

자료: 하나은행

달러/원 환율

4월 동향

미 인플레이션 기대 완화 속 국채금리 하향 안정이 위험선호 견인한 가운데 연준의 완화적 통화 스탠스 기조 재확인 등으로 하락

미 정부 인프라 투자 계획 발표 속 국채금리 하향 안정 기조 등이 달러 약세 견인

- 3월 후반, 미 행정부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 계획이 위험선호 강화시킨 가운데 미 국채금리 하향 안정과 미 경제지표 개선으로 달러 강세 탄력 받으며 1,120원 초반으로 하락
 - 전월 후반 미 바이든 행정부 대규모 인프라 투자계획 발표의 위험선호 영향이 달러 약세를 지속시키며 환율 하락 출발
 - 이어 미 경제지표 개선과 국내 기업실적 호조 등으로 원화강세, 달러 약세 흐름 이어지며 큰 폭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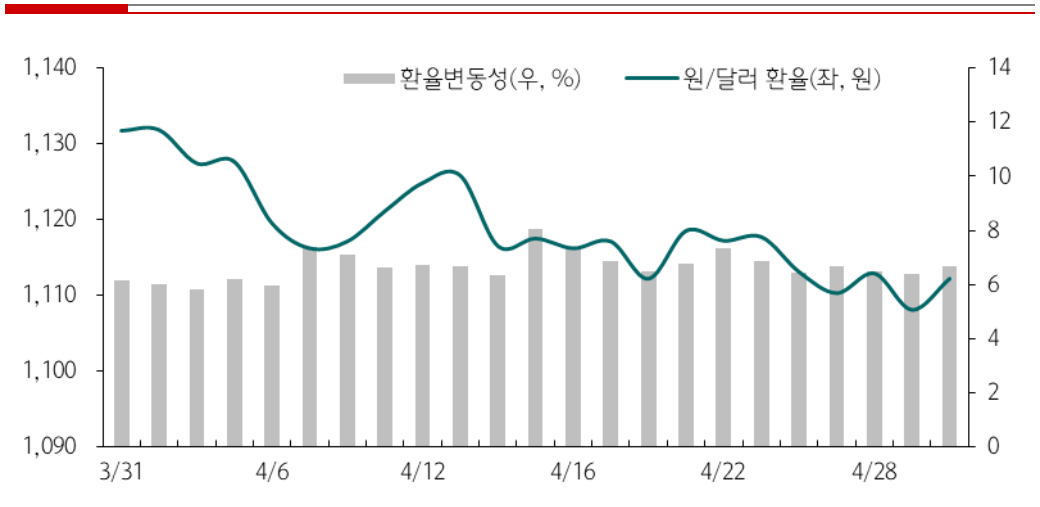
미 국채금리 하향 안정 이어졌으나, 국내 외국인 역송금 수요 등이 하단 지지

- 월 중반, 미 국채금리 등락이 달러 방향성을 결정짓는 가운데 역송금 수요 등이 환율 상승 견인. 이후 미 국채금리 하향 속 중국의 신냉전 관련 반대 표명 등이 하락 전환에 영향
 - 미 국채금리 1.7%수준까지 상승하며 달러 강세를 견인한 가운데 역송금 수요 등이 추가 상승 일조
 - 그러나 미 인플레 지속에도 국채금리가 1.5%로 회귀하며 위험선호에 영향을 미친 가운데 중국의 신냉전 대립 반대 표명 등에 따른 위안화 강세에 원화도 동조 움직임 보이며 하락 요인으로 작용

인도 發 코로나 재확산세 우려 등에도 연준의 완화적 스탠스에 달러 약세 시현

- 4월 후반, 인도 코로나 확산세가 안전자산 선호 강화한 가운데 미 자본이득세 인상이 금융시장 불확실성 키웠으나, 연준의 완화적 통화스탠스 재확인 등으로 1,110원 초반까지 하락
 - 인도 코로나 확산세가 통화시장 안전자산 선호를 강화한 가운데 미 자본이득세 인상 등이 뉴욕증시 하락 등에 영향을 미치며 환율 하락세가 다소 주춤
 - 이어 FOMC에서 연준은 당분간 현 완화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스탠스와 한-미 1분기 성장률 호조 등이 환율 하락을 견인했으나, 1,110원대 아래에서의 외환당국 경계감 강화 등이 하단 제한하며 마감

달러/원 환율 추이 및 환율 변동성



4월 달러/원 평균환율 : 1,118.3
4월말 달러/원 환율 : 1,112.3

자료: 하나은행

5월 전망

한-미 1분기 성장률 개선 속 연준 완화적 통화스탠스가 달러 약세 견인하겠지만, 여전히 미 국채금리 추가 상승 여지 상존한 가운데 국내 증시 불확실성, 백신 보급 저조 등이 원화 약세 견인할 전망

평균	1Q21	2Q21	3Q21	4Q21
달러/원 환율(원)	1,114.7	1,120 ^(F)	1,130 ^(F)	1,145 ^(F)

연준의 통화완화적 스탠스 지속하는 가운데 미 경기 개선세 강화는 미 국채금리 추가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도

- 연준이 미 경기 판단이 개선되고 있음을 시사하면서도 지속적인 통화완화 언급 속 양적완화 지속 등이 달러 약세 견인할 전망. 그러나 백신접종 속도 확대 속에 경제 재개 등이 여전히 미 장기채 금리 추가 상승에 탄력을 더할 가능성이 상존한 점은 달러 강세 요인으로 판단됨
 - 전월 FOMC에서 미 경기 개선이 강화되었음을 시사하면서도 물가 지표 2%를 완만히 웃도는 경우가더라도 완전한 회복까지 완화적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 시사가 단기 달러 약세 견인할 전망
 - 그러나 경기회복세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미 장기금리의 추가 상승을 배제할 수 없다는 측면이 환율 가격에 반영될 가능성은 여전히 달러 강세가 지지 받을 수 있는 요인으로 판단됨

미국 1분기 성장률 호조와 백신접종에 따른 경제 재개 등이 테이퍼링 이슈보다 단기 위험선호에 영향 미칠 듯

- 미국 1분기 성장률 호조 속에 경기부양책 지속과 백신 보급에 따른 경기 정상화 기대 등이 단기적으로 테이퍼링 효과를 확대하기 보다 위험 선호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다만 중기적 관점의 테이퍼링 가능성 반영 등이 달러 약세 제한할 요인으로 보임
 - 미국 1분기 성장률이 백신 접종과 추가 부양 효과로 6.4%(연율) 달성한 측면은 경기회복에 따른 투자여건 개선 신호로 단기적으로 위험선호에 우선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잠재적 테이퍼링 전제조건이 완결되어간다는 측면에서 이에 대한 시장 참가자의 전망이 선반영되는 점은 중기적 관점의 달러 강세 견인 요인으로 작용하며 가격에 일부 반영될 전망

5월 달러/원 환율 1,110 ~ 1,125원 예상

- 국내 1분기 성장률이 1.6%로 호조를 보인 가운데 수출 경기 또한 개선되고 있는 점이 원화 강세 요인. 그러나 국내 공매도 재개 등에 따른 국내 증시 불확실성 증대, 뒤쳐진 백신 보급 이슈 등이 원화 강세 제한 요인으로 보이는 가운데 외환당국 경계감도 하단 제한 요인 전망
 - 대내적으로 1분기 국내 성장률이 전기대비 1.6%로 시장 예상을 상회한 가운데 수출 경기 개선세가 지속적으로 호조를 보이는 측면은 최근 원화 강세를 유지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그러나 5월 증시에서의 공매도 재개 이슈가 국내 증시 불확실성을 확대할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과 뒤쳐진 국내 백신 보급 이슈 등이 원화 강세 제한할 요인. 여기에 1,110원대 전후에서의 외환당국의 강한 경계감 강화 등도 1,100원대를 강하게 지지할 것으로 예상

상승 요인 vs. 하락 요인

상승요인	하락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 경기회복 강화에 따른 금리 상승세 · 국내 증시 변동성 확대에 따른 외국인 순매도 확대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준의 통화완화 스탠스 유지

자료: 하나은행

엔/원 환율

4월 동향

미국채 금리 상승세 진정 속 미-일 금리차 축소 영향으로 달러/엔 환율 하락 흐름 이어가다 월 말 달러 강세 영향에 상승 전환. 엔/원 환율은 엔화의 약세 되돌림에 상승 시현하였으나 월 후반 아시아 통화 강세 속 원화 강세에 하락 전환

엔/원 환율 전월대비 1.0원 상승한 1,019.2원에 마감

- 엔/원 환율은 엔화의 약세 되돌림에 1,030원 후반대까지 상승한 후 월 후반 위안화에 연동된 원화 강세 영향으로 상승분 반납
 - 월 초, 미 국채 금리 상승세 완화에 따른 미-일 금리차 축소 영향으로 엔화 강세 시현, 이에 달러/엔 환율은 상승 전환
 - 월 중반, 위험선호 재개 속 원화 강세에도 불구하고 엔화의 약세 되돌림이 더 크게 작용함에 따라 엔/원 환율 상승세 지속. 배당 역송금 수요도 원화 강세를 제한
 - 월 후반, 미국 환율 보고서 발표 이후 위안화를 비롯한 아시아 통화 강세 흐름 속 국내 경기 회복 시그널에 엔/원 환율 하락 마감

5월 전망

미국 경기 회복 기대 속 테이퍼링 우려, 미국채 금리 상승 재개 등이 미-일 금리차 확대에 이어지며 달러/엔 환율 상승을 견인할 전망이다. 엔/원 환율은 미국채 금리 상승시 원화 약세 또한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제한된 하락 전망

달러/엔 환율 제한적 상승 전망

- 미국 경기 개선 기대감에 따른 달러강세 속 달러/엔 환율 상승 전망
 - 미국 경제지표 호조 속 경기 개선 기대감이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로 이어지며 달러 강세가 재개될 것으로 예상. 1분기 미국 경제성장률 호조, 고용지표 개선, 물가지수 상승세 등이 동반으로 나타날 경우 테이퍼링 가능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임
 - 다만, 연준의 스탠스가 아직까지는 완화적인 점을 감안했을 때, 시장의 테이퍼링 우려 확대시 이를 진정시키는 발언이 나올 수 있는 점은 달러/엔 환율 상승을 제한할 전망이다

엔/원 환율 하락 우려 전망

- 엔화 약세 기조 속 원화 약세가 엔/원 환율 하락을 제한할 전망이다
 - 미국 경기 회복에 따른 금리 상승 재개 속 미-일 금리차 확대가 엔/원 환율 하락을 견인할 전망이다
 - 국내 제조업, 수출 경기 개선 등 대내 여건이 원화 강세 우호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나 공매도 재개 이슈에 따른 국내 금융시장 불확실성, 테이퍼링 이슈 부각시 원화 약세 불가피 전망 등을 감안할 때 제한된 환율 하락 예상

유로/원 환율

4월 동향

유로/달러 환율은 유로존 백신 보급 정상화, 경기 불안 우려 완화 등으로 상승 시현. 유로/원 환율은 원화 강세에도 불구하고 유로화 강세 영향으로 완만한 상승 시현

유로/원 환율
전월대비 20.8원 상승한
1,336.8원에 마감

- 미국 금리 안정화, 유로존 백신 보급 정상화 기대 등에 따른 유로화 강세 영향으로 유로/원 환율 전반적인 상승 시현
 - 월 초, 유로/원 환율은 원화 강세 및 유로존 코로나19 재확산 여파 등으로 낮은 수준 유지하다 미국 채 금리 안정 속 강달러 되돌림에 따른 유로화 강세전환 영향으로 상승 시현
 - 월 중반, 온건한 연준 스탠스 재확인한 영향으로 미 국채금리 안정, 위험선호현상 등이 유로화 강세를 견인함에 따라 유로/원 환율 추가 상승
 - 월 후반, 온건했던 ECB 통화정책회의, 위안화와 연동된 원화 강세 영향 등이 유로/원 환율 하방압력으로 작용했으나 화이자 백신 계약 확대 소식 등에 따른 유로존 백신 보급 정상화 기대에 경기 개선 전망이 강화되며 유로/원 환율 상승 마감

5월 전망

유로존 백신 접종 정상화 및 EU 공동회복 기금 집행 효과 기대 등 유로화 강세요인과 미국채 금리 상승시 달러 강세가 유로/달러 환율 변동성을 높일 전망. 유로/원 환율은 유로존 경기 회복 기대감에 따른 유로화 강세요인으로 상승 전망

유로/달러
변동성 확대 전망

- 유로존 백신 보급 등에 따른 경기 회복 기대와 미국채 금리 상승 여부 사이에서 환율 변동성 높일 전망
 - 유로존 백신 접종 정상화 기대감, EU 공동회복기금 집행을 앞둔 경기 회복 전망 등이 유로 강세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다만, 미국채 금리가 다시 추세적 상승을 이어갈 경우, 여전히 불확실한 유로존 경기 회복 기대감보다 강달러에 주목하며 유로/달러 환율 하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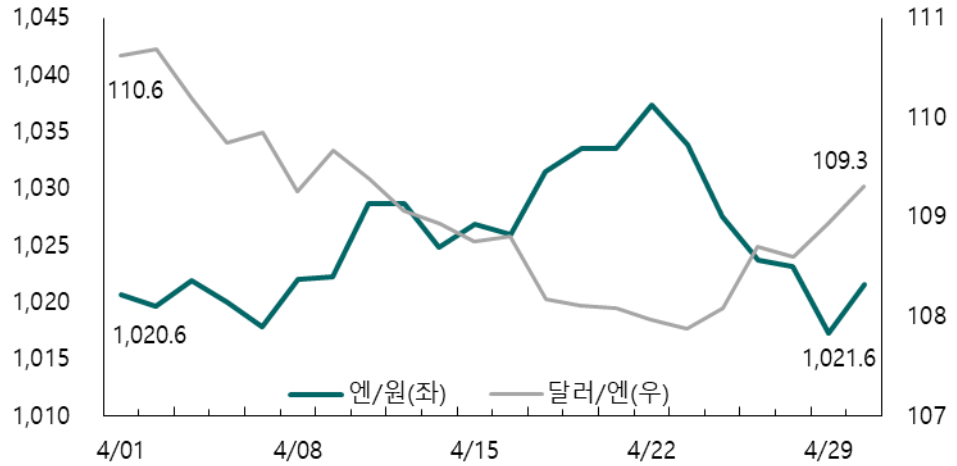
유로/원 환율
제한적 상승 예상

- 유로존 백신 보급 정상화 기대에 따른 유로화 강세에 따른 유로/원 환율 상승 전망
 - 유로존 코로나19 확산 진정시 경제 봉쇄 철폐 등에 따른 경기 회복 기대가 유로화 강세를 견인함에 따라 유로/원 환율 상승 시현 전망
 - 다만, 한국 경기 회복 등 원화 강세 우호적 환경이 환율 상승을 제한할 전망

JPY, EUR Chart

엔/원 및 달러/엔 환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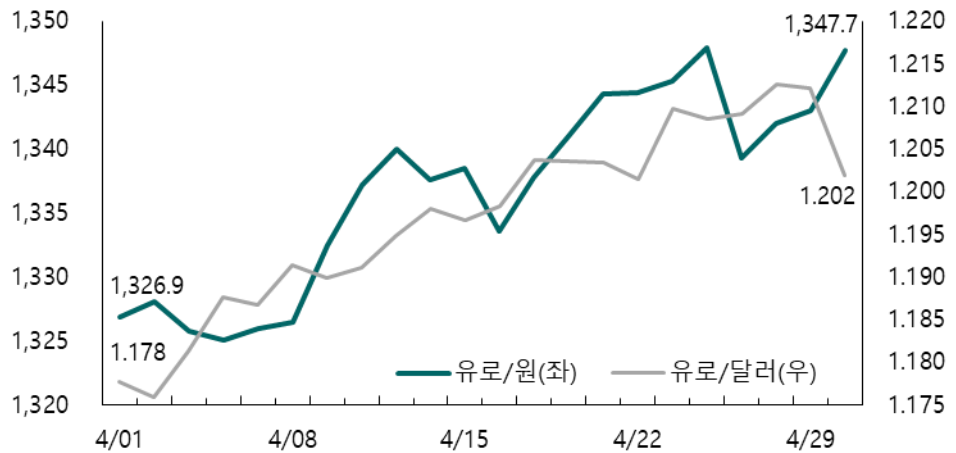
4월 달러/엔 평균환율 : 109.0
 4월 엔/원 평균환율 : 1,025.6
 5월 엔/원 예상범위 : 1,010~1,035



자료: 하나은행

유로/원 및 유로/달러 환율 추이

4월 유로/달러 평균환율 : 1.1971
 4월 유로/원 평균환율 : 1,336.8
 5월 유로/원 예상범위 : 1,330~1,365



자료: 하나은행

국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일정(2021.5월)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근로자의 날
<p>*주: 1.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P]-잠정치, [F]-확정치, [SA]-계절조정, [A]-예고치, ()안은 이전치</p>						<p>한 4월 수출/수입(16.6%/18.8%, YoY) 4월 무역수지(\$4,175M)</p>
2	3	4 RBA 통화정책회의	5 한국 휴장(어린이날)	6 BOE 통화정책회의	7	8
<p>한 4월 Markit PMI 제조업(55.3) 미 4월 ISM 제조업지수(64.7) 4월 ISM New Orders(68) 4월 ISM 고용(59.6), ISM 구매물가지수(85.6) 4월 Markit 제조업 PMI 3월 건설지출(-0.8%, MoM) 유 4월 Markit 제조업 PMI</p>	<p>한 4월 CPI(0.1% MoM, 1.5% YoY) 미 3월 내구재 주문(F), 제조업 주문(-0.8%) 3월 무역수지(\$-71.1b) 중 4월 Caixin 제조업 PMI (50.6) 호 RBA 기준금리(0.1%)</p>	<p>미 4월 ISM 서비스(63.7) 4월 Markit PMI 종합(F)/서비스(F) ADP 취업자 변동 유 4월 Markit PMI 서비스 4월 Markit PMI 종합</p> <p>Fed's Evans Speaks on Economy on Monetary Policy</p>	<p>한 4월 외환보유고(\$446.13b) 미 4월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유 3월 소매판매(3.0% MoM, -2.9% YoY) 중 4월 Caixin 종합 PMI(53.1)/서비스 PMI(54.3) 독 3월 공장수주(1.2% MoM, 5.6% YoY) 영 5월 영란은행 기준금리 0.10%</p> <p>Fed's Kaplan Takes Part in Moderated Q&A</p>	<p>한 4월 BoP 경상수지, 상품수지 미 4월 실업률(6.0%) 시간당 평균임금(-0.1% MoM, 4.2% YoY) 중 4월 무역수지(\$13.8b) 4월 수출/수입(30.6%/38.1%, YoY) 일 4월 번연통화 독 3월 산업생산(-1.6% MoM, -6.4% YoY) 3월 무역수지(18.1b) 3월 경상수지(18.8b)</p>		
9	10	11	12	13	14	15
<p>유 5월 섀넥스 투자자대지사(13.1)</p>	<p>유 5월 ZEW 서베이 예상(66.3) 중 4월 CPI/PPI(0.4%/4.4%, YoY) 일 3월 가계 소비지출(-6.6%, YoY) 독 5월 ZEW 서베이 예상(70.7)</p>	<p>한 4월 실업률(3.9%) 미 4월 CPI(0.6% MoM, 2.6% YoY) 유 3월 산업생산(-1.0% MoM, -1.6% YoY)</p> <p>Fed's Clarida Speaks at NABE Conference</p>	<p>한 4월 통화규금 L(3.4%, MoM), MZ(1.3%, MoM) 미 4월 PPI(1.0% MoM, 4.2% YoY) 일 3월 BoP 경상수지, 상품수지</p>	<p>한 4월 수출물가지수(3.3% MoM, 5.6% YoY) 4월 수입물가지수(3.4% MoM, 9.00% YoY) 미 4월 수출물가지수(2.1% MoM, 9.1% YoY) 4월 수입물가지수(1.2% MoM, 6.9% YoY) 4월 미시간대 소비자신뢰, 경기연황 4월 설비가동률, 광공업생산(1.4%, MoM) 4월 미시간대 소비자신뢰 일 4월 통화량 M2(9.5% YoY), M3(8.0% YoY) Revisions: Manufacturers' Shipments, Orders,</p>		
16	17	18	19 한국 휴장(석가탄신일)	20 美 FOMC	21	22
<p>중 4월 소매판매(34.2%, YoY) 4월 광공업생산(14.1%, YoY) 4월 신규주택가격 일 4월 공차기계 수주 전년비(65.1%, YoY) 4월 PPI(0.8% MoM, 1.0% YoY)</p>	<p>미 4월 주택착공건수(19.4% MoM) 4월 건축허가(2.7% MoM) 유 3월 무역수지, 1Q GDP 1Q 고용(0.3% QoQ, -1.9%, YoY) 일 1Q GDP(2.8%, QoQ)</p>	<p>유 4월 CPI(1.3% YoY) 일 3월 광공업생산(F) 3월 설비가동률(-2.8%, MoM)</p>	<p>미 5월 필라델피아 연준 경기 전망 5월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유 3월 건설생산(-2.1% MoM, -5.8% YoY) 3월 ECB 경상수지 (25.9b) 중 1년 위안화 대출금리 3.85% 5년 위안화 대출금리 4.65% 일 4월 수출/수입(16.1%/5.7%, YoY) 4월 무역수지(¥663.7b) 독 4월 PPI(0.9% MoM, 3.7% YoY)</p>	<p>한 4월 PPI(3.9% YoY) 미 5월 Markit PMI 제조/종합/서비스 4월 기준 주택매매(-3.7% MoM) 4월 시카고 연방 국가활동 지수 유 5월 Markit 제조업/서비스/종합 PMI 일 5월 지분은행 PMI 제조업, 서비스, 종합</p>		
23/30	24/31	25	26	27 韓 금융위정례회의	28	29
<p>한 4월 소매판매 YoY</p> <p>5/31 중 5월 종합/제조업/서비스업PMI 일 5월 소비자대지사, 광공업생산</p>	<p>한 5월 소비자심리지수 미 4월 신규 주택매매 5월 리치몬드 연방 제조업지수 5월 컨퍼런스보드 소비자대지사 일 4월 공차기계 수주 전년비 독 5월 IFO 기업환경지수 6월 CFK 소비자 대지사</p>	<p>한 6월 기업경기실사 제조업/비제조업 미 MBA 주택용자 신청자수 일 4월 PPI 서비스(0.7%, YoY)</p>	<p>한 BoK 7일 Repo 금리(0.5%) 미 5월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4월 내구재 주문, MBA 주택용자 신청자수 1Q GDP물가지수 중 4월 산업생산</p>	<p>미 4월 도매재고, 소매재고 4월 개인소득, PCE 디플레이터 5월 미시간대 소비자신뢰, 경기연황 유 5월 경기/산업/서비스/소비자 대지사 일 4월 실업률 5월 도쿄 CPI 3월 건설수주, 주택착공건수</p>		

본 자료는 현 경제상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기초자료입니다. 따라서 투자 권유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본 자료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근거해서 작성된 것이나 정확성 등을 보증한 것은 아니며, 자료에 나타난 의견이나 전망치는 향후 예고없이 당행의 판단으로 수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자료는 당행의 저작물이며 사전의 승인 없이 본 자료의 전체 혹은 일부를 인용하거나 복제하여 사용하는 것을 금합니다.

본 자료는 하나은행 외환포털(<http://fx.kebhana.com>) → 환율 → 외환시장동향 → 월별금리환율예측자료)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